

안녕하세요!

일산, 대화 모임에 참석하고 있는 파주 전입니다.

오늘은 도박을 중단 한 지 1년이 조금 넘는 날입니다.

단도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돌아 볼 수 있게 소감문 작성의

기회를 주신 선생님과 가족 모임의 여사님들에게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생소한 소감문 형식 글은 저의 속마음을 타인에게 드러내기 힘들어하며 글쓰기 표현이 거칠고 서투른 저에게는 큰 도전입니다..

선생님, 여사님의 응원에 힘을 빌려 과거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잔치를 맞이한 주엽 민선생님, 주엽 김여사님, 원흥 나선생님, 원흥 조여사님,

그리고 언제나 저를 응원하는 홍여사님, 자축과 더불어 축하드립니다.

시작합니다.

세상의 모든 어린이가 그러하듯 저의 어린 시절도 나열할 수 없을 만큼 많았던 꿈이 있었습니다.

성장과 주변의 변화함에 따라서 자의 반 타의 반 나는 뭐가 되고 뭐를 할 거야 그리고 이렇게 살아야지 등등

(예를 들어 모두 다 꿈꾸는 그 흔한 대통령, 운동선수 검사 변호사 파일럿 등)

그 꿈들은 커가면서 기억에만 남는다는 사실을 아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 많은 꿈 가운데 오랜 시간을 상상하고 간직한 꿈이 하나 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영똥하고 영똥한 이 꿈은 다른 꿈과 더불어 성공해서 잘 살고 60살이 되면 세상을 마무리하고 싶다는 바람이었 습니다.

아들딸이 20살이 되면 죽어도 상관없다는 꿈. 굵고 짧게 살다가 가고 싶다는 어린 시절의 상상입니다.

그때는 60살이 굉장히 길고 오랜 시간이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는 쉽게 다가오네요.

제가 이미 59살이거든요.

아마도 이런 상상의 배경에는 어린 저의 눈에 보이는 세상이 그렇게 만만하거나 좋아 보이진 않았던 것 같습 니다..

가난하여 끼니 거르는 날이 먹는 날보다 많았던 저에게는

할 수 있는 것도 별로 없었고, 주변의 차별에 대한 시선도 부끄럽고

싫었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난한 삶, 그리고 가족이 해체되는 현실,

어린 제가 감당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인지 어린 시절 불우한 환경을 어디에서도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가난은 저를 침울하게 만들고 비교 당하게 만들었으며 항상 뒤편에 서게 만들었습니다.

학교의 육성회비란 높은 매질의 도구였으며 먹기 위하여 초등학교(초등) 시절부터 아침과 저녁

신문 배달하여 집안을 보태던 바쁜 어린 시절이었으니까요

이런 환경은 어둡고, 부끄러웠지만 강제적으로 독립적이고 절대 질 수 없는 아이로 성장하게 했습니다.

독하게 강해 보이려 노력했으며 쓰러지지 않도록 스스로를 몰아 붙였습니다.

이런 환경은 혼자 살아갈 수 있는 긍정적인 힘과 한 부분이 무너지면 쉽게 쓰러지는 부정적 성격에 커다란 영 향을 주었습니다.

물론 내재된 부정적 요소가 포장된 채로 오랜 시간이 행복했던 적도 있습니다.

젊어서 일까요?

청년기의 대학 시절과 군 생활 등 은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용돈이 필요하면 기원과 당구장에서 해결하였고 등록금이 필요하면 과외를 하면 쉽게 해결됐습니다..

젊음 때문인지 그냥 하고자 했던 모든 것을 거침없이 했고 비교적 별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인생을 막 살지도 않았습니다.

학업도 여행도 우정 쌓기도 무엇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 열심을 다한 시기였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 절대 놓치기 싫은 강박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열심을 다한 시기였기에 제가 한 내기 바둑 당구 포커가 도박이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으며 단순한 돈벌이 혹은 놀이, 취미란 착각 속에 살았던 시간입니다.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도박에 관한 이해의 중심이기에 도박 중독이란 병을 치유하고 벗어나는데 큰 장애이며 어려움입니다.  
현재도 도박에 대한 모호성에 의심을 하곤 합니다.

그러다 졸업 후 군 장교로 임관 서울에서 출퇴근 근무하다 보니 남는 시간이 너무 많았고 남는 시간은 시간이 허락될 때마다 대학 때와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오랜 시간 인식하지 못한 도박이 계속된 거지요!

전역 후 대학원을 다니며

지금의 아내와 연애 후 결혼을 합니다.

결혼 후 열심히 일하니 돈은 저절로 따라오더군요

젊은 시절부터 필요하면 돈을 벌면 됐고 있으면 먹고 여행하고 주위에 도움도 주고 쉬운 인생이었습니다.

60살까지만 살 거니까요?

결혼 생활 초기는 일이 바쁜 탓에 도박이 나를 붙잡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아마도 10년 정도 지났을까?

가족 여행으로 홍콩을 경유 마카오 여행 중 신세계를 경험합니다.

(물론 카지노를 처음 간 것은 아닙니다.

미국 유학 시절 잠시 잠시 친구들과 즐기던 카지노는 가난한 유학생의 휴식 공간이지 도박의 장소는 아니었습니다)

그 여행 중 짧은 하룻 밤 새우는 시간 만에 3,000 달러는 35,000 달러가 됩니다..

한국 돈으로 무려 오백만 원이 넘는 행운을 경험합니다.

아내에게 자랑했던 나를 지금 생각해 보니 참으로 가소롭고 창피합니다.

이 때부터 도박은 저의 지독함 승부 근성 과거의 젊은 시절의 좋은 기억들과 뒤섞여서 점차 회수가 늘어갑니다.

그래도 수년 동안은 즐겁고 수익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시점부터는 수익은 없고 즐거움만 있더군요

아마도 이 시점이 중독의 시작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무언가 집중하면 그것이 일이던 휴식이던 놀이던 연락을 두절하게 됩니다.

아내 흥 여사가 제일 괴로워하는 것을 자의 반 타의 반의 핑계로 잘하지 못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상당 기간 돈을 잃어도 감각이 별로 없습니다.

사업은 잘 됐고 수입도 좋았던 시간, (그래 돈은 다시 벌면 되는 거지)

하는 생각에 정신이 썩어가는 나 자신이 심하게 한심하지만 그 장소를 벗어나면 쉽게 잊혀집니다.

주어진 환경에 최선을 다하는 함몰되는 성격과 결함이 있던 어린 시절의 부정적 성격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어느 시기부터 인지 나 자신을 합리화하던 시기가 지나고 나를 부정합니다.

분명 일상 돌아온 후 많은 문제가 있을 것을 알고 걱정되지만 그것보다

도박을 하는 이 시간이 우선합니다.

내 본성이 서서히 파괴되는 것을 느끼면서도 심하게 괴로워하지만 잠시입니다.

이런 행동과 생각이 반복되면서

도박에 중독됨을 인지하고 흥 여사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내가 아프다고 도박 중독 센터를 알아봐 달라고 부탁드립니다.

상담을 신청하고 흥 여사와 저는 상담을 진행. 흥 여사는 지속적 상담 후 가족 모임으로

저는 중단을 합니다.

(자신을 속이는 스스로의 한심함, 거만함으로 상담이 도움이 안 될 것 같은 스스로의 판단 등)

그 후 지속된 2년의 시간 동안 본성이 망가진 저를 도저히 참을 수 없었는지 흥 여사가 다시 한번 권유합니다.

그 당시 나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뒤돌아보자 그리고 시간을 한번 가져보자 하는 심정으로 자조 모임을 참석 하였고

1년의 시간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은 여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가해지면 계획을 세우고 실천할 건강함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자조 모임이 나에게 특별한 무언가를 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스스로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주며 자신에게 질문을 하고 답을 하는 과정을 통해 자신을 조금씩 이해하게 됩니다.

자조 모임의 회원들이 전하는 사랑 아픔 행복 그리고 반성과 성찰, 인생의 희로애락을

담담하고 솔직하게 표현하면 저는 그냥 공감합니다.

이런 저와 회원님 들의 표현과 공감 속에 나 자신은 편안함을 배우고 안정감을 느끼며 생각의 시간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어쩌면 이 평범함이 특별함 이겠지요

지난 1년의 자조 모임의 시간은 인생을 다시 한번 배워가는 시간 이였음을 가장 큰 가치로 생각합니다.

어렸을 적, 60살에 인생이 끝났으면 좋겠다는 나의 꿈이 이제는 20년이 연장됐으니

이 많은 시간을 자조 모임과 함께 흥 여사님과 제2의 인생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시간으로 삼겠습니다.

특별히

흥 여사님에게 고마움과 감사함을 전합니다.

옆에 있어줘서 고맙다고.

거짓말과 연락 두절이 수시로 되던 나를

들기면 불같이 화내던 나를 참아줘서 고맙다고

자존감이 떨어진 나를 칭찬으로 일으켜 세워줘서 고맙다고,

우리네 아들딸이 엄마 아빠를 먼저 걱정하는

성인으로 부족함 없이 인내하며 잘 키워서 감사하다고

흥 여사님에게 알아 달라고 전합니다.

우리는 상당히 괜찮은 가족이며 부부라는걸.

일상의 많은 시간을 함께 대화하고, 옆에 있어도 지루하지 않으며 즐겁고 행복하다는 것을.

서로 아픔을 이해하고, 아픈 부분을 건드리지 않으며 참아주는 부부라는 것어요.

그리고 흥 여사님에게 위로를 전합니다.

원 가족으로 인해 슬퍼하지 마세요 그냥 인생의 한 부분으로, 기쁨으로 생각합시다

저도 기쁜 마음으로 잘못된 것들과 싸우면 옆에 있겠습니다.

그냥 우리 이렇게 곱게 평안하게 나이 먹어 갑시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행복합시다.

잘 참고 살아갑시다.

마지막으로

인도의 현자 오쇼 라즈니쉬는 이렇게 말합니다.

참을 수 없는 분노로 사람을 죽여야 한다면 죽이라고

다만 오늘이 아닌 내일로 미루라고

우리는 참을 수 없는 도박과 유희으로부터 유희이 온다면

내일로 미룹시다  
그렇게 매일 매일..

부족한 소감문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